

정기
총회

제9차 정기총회 개최

2004년도 사업계획 발표

신규 회장단 및 이사진 48명 추인



협

회는 지난달 27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제9차 정기 총회를 열고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 및 신규 임원진 4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또한 협회는 2004년 사업목표를 '회원사 자율참여와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대회원서비스 강화 △정책제언기능제고 △공익기능 및 홍보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이 날 정기총회 식전 프로그램으로 유한김벌리 문국현 대표가 '21세기 메가트렌드와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곧 이어서 정

기총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벤처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문현 감사가 2003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결과에 관해 보고하고, 오형근 상근부회장이 2003년도 사업실적과 2004년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다.

특히, 2004년 주요사업인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 △벤처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벤처코리아 2004 사업



1. 총회를 진행하는 장흥순 회장
2. 2003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강문현 감사
3. 총회가 끝난 후 화기애애한 만찬 자리가 이어졌다
4. 격려사를 하는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
5.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하고 있다
6. 회의장 입구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회원들
7. 자료를 유심히 읽어보는 회원들

△정보제공기능 강화 사업 △윤리경영확산 사업과 기타 벤처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실태조사를 위한 홍보·연구조사 사업 △벤처CEO 섬머 스쿨 개최에 관해 취지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정기총회의 주요 안건이었던 신규임원선출에 관한 안은 참석한 모든 회원이 이견 없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 가결되었다.

차세대 한국 벤처산업을 이끌 대표 벤처기업가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모은 신규임원 구성의 특징은 첨단제조업, 인터넷, 문화콘텐츠,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환경, 바이오 등 산업별 대표가 고루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임원과 더불어 신규 임원진은 각종 포럼 및 정책개

발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해 협회 실무를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벤처기업 해외 진출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벤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장흥순 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선발 벤처기업의 노하우와 신생 벤처기업의 창의성을 접목시켜 벤처업계의 신규 세대간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지금 벤처업계는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젊은 벤처기업 대표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들의 참여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